

고양 사랑방

고양시민 및 소식지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

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

- 원고종류
수필·공트·체험수기·기행문·독후감·사진·만화 등 제한 없음
- 원고분량
A4 용지 1장 이내(사·만화 등은 적정 분량)
- 원고마감
수시 접수
*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.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- 보낼 곳
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(주교동)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<고양소식> 담당자
- E-mail gysosic@korea.kr
- 고양시청 홈페이지
www.goyang.go.kr(늘푸른고양/시정소식지)
- 페이스북
www.facebook.com/gysosic

2 월 호 독 자 후 기

01 이정호(고양시 덕양구)

“고양 여기 어때” 고양어린이박물관에 대한 기사가 노령화시대에 앞으로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위한 내용이라 좋았습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, 이런 분들을 위한 기사가 실렸으면 합니다.

02 이용자(고양시 덕양구)

아마추어 작가로서 창작의 꿈을 펼칠 수 있는 <메이커스페이스>가 있다니 기쁘고 이용해 보고 싶어졌습니다.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스페셜 테마도 좋았습니다.

03 윤성구(고양시 덕양구)

“로컬푸드&레시피”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. 신선도와 가격 모두 만족스러워 많은 분들이 애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색색의 컬러링처럼 신선한 내용 담아주시면 더욱 즐거운 고양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.

04 정준건(고양시 일산동구)

설과 정월 대보름이라 하여 떡국의 유래를 소개해서 유익했습니다. 표지와 내지 디자인이 젊은 감각으로 세련되어 보기 좋았습니다. '이 잡지는 뭘까?'라는 호기심과 친근함이 느껴져 펼쳐보았습니다.

05 박철호(고양시 일산서구)

정 넘치는 고양시민들 추운겨울에 훈훈한 이야기가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줍니다. 예전보다 시민 곁으로 좀 더 다가온 느낌입니다.

06 장효선(서울시 은평구)

옛 지도를 통해 본 고양의 독립운동 지도가 첨부되어 있어 내용이 더 사실적으로 와닿았습니다. 옛 지명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글씨가 작고 바탕색이 노란빛깔이라 읽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

2 월 호 컬러링



김연수
(고양시 덕양구)



고은영
(고양시 덕양구)



임영찬
(고양시 일산동구)



김현국
(강원도 원주시)